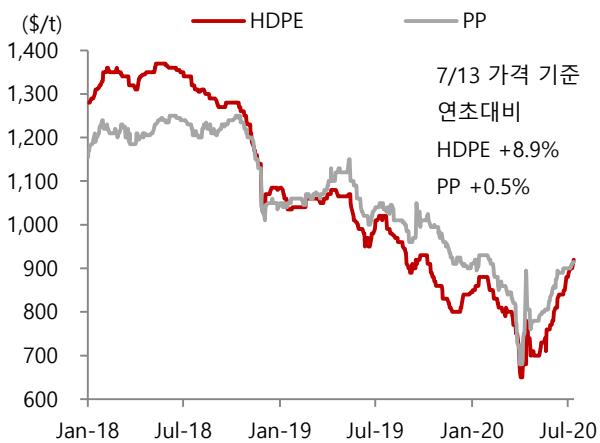


## 화학 제품가격이 좋은 이유는?

▶ 연초 가격을 넘어선 화학 대표 제품 PE/PP. 건설/건자재 쪽 수요회복과 코로나19 우려로 공급업체들이 대규모 정기보수/가동률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임.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3Q 성수기까지는 양호한 spread 유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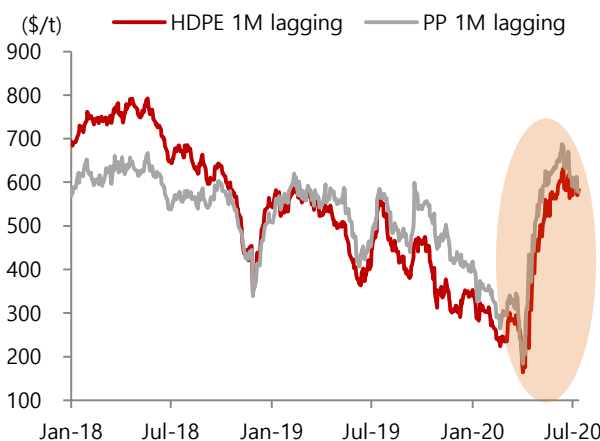
### 2분기 반등으로 연초 가격을 넘어선 화학대표제품 PE/PP



자료 : Cismem, Bloomberg, SK증권

- 2분기 석유화학의 대표제품인 PE와 PP 가격의 반등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. 두 제품 모두 1분기에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급락세를 시현했는데, 이후 빠른 반등이 나왔죠
- 그래서 결국 연초대비로 봤을 때, 7/13 가격 기준 HDPE는 +8.9%, PP는 +0.5%를 기록 중입니다. 참고로 LDPE는 +8.0%, LLDPE는 +1.8%입니다
- 참고로 유가는 Dubai 기준 연초대비 -34.0%이기 때문에 spread 측면에서는 큰 폭의 개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
- 2분기 화학 실적의 회복에는 단연 이 PE/PP의 spread 확대가 큰 몫을 했습니다. 7월까지도 lagging spread 기준 \$600/t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, 이는 2018년 호황기 때와 맞먹는 수준이니까요

### 1M lagging spread는 호황기 수준까지 확대됨



자료 : Cismem, Bloomberg, SK증권

- 그렇다면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, 이런 가격 반등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?
- Platts 코멘트를 보면 일단 수요회복이 있었습니다. 건설/건자재 쪽이 좋았다고 하는데요. 코로나19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리모델링이 각광을 받는 것과 비슷한 논리가 되겠죠?
- 다만 수요의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포장과 IT는 좋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수요가 그리 큰 변수는 아닌 듯 합니다
- 역시 가장 큰 원인은 공급조절에서 찾을 수 있겠죠
-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충격을 우려한 업체들이 2분기에 대규모로 정기보수에 진입한 것이 컸고, 동시에 신규설비들이 가동 시점을 또한 늦추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
- 일단 트레이더들도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. 다만 3Q 성수기까지 감안한다면 당분간 spread는 나쁘지 않겠네요

• 작성자는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 
 •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 
 •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 
 •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  
 •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 이상 → 매수 / -15% ~ 15% → 중립 / -15% 미만 → 매도

